



| | | | |
|--------|-------------|------------------|---------------|
| 주 제: | “ 사랑받는 아들 ” | “ 주님 세례 축일 ” | 2009년 1월 11일 |
| 복음 묵상: | [마르 1,7-11] | [이사야 42,1-4.6-7] | [사도 10,34-38] |

2000년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당신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심을 나타내며, 당신과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간과의 소통이듯이 주님의 뜻에 따른 우리가 받은 세례는 구원으로 가는 문이며 나를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랑의 행위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그 사랑의 모습을 살려고 다짐한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인간 구원을 위한 번뇌와 고통과 죽음의 여정에서 사랑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물과 기름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즘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어렵고 힘들며 더더욱 여러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러나 세례를 통한 성삼위의 사랑과 위로는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자녀이다"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우리도 진정 나를 발견하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자. (원주 신우식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2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공지 사항:

1. **2009년 새 임원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성가대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임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단장: 최주남(예로니모) 총무: 김효식(필립보 네리)
 악보장: 박영아(소피아) 회계: 강인경(세실리아)
 소프라노장: 주성숙(리따) 알토장: 김재훈(세실리아)
 테너장: 안호삼(프란치스코) 베이스장: 신제완(대건안드레아)
 기획/대외담당: 최일해(다니엘)
 자문위원: 이상규(토마스 아퀴나스), 문성호(요셉), 김지만(토마스)

2. 교중 미사곡 파트별 연습곡은 아래의 성가대 연습실에 있습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3.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4. 악보와 음원을 같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NWC 파일을 쓰고자합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가서 download 받으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2>

+ 복음 [마태 2,1-12]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분 명상

♡ 현명한 물고기가 되는 법 ♡ ♡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 시편의 말씀을 매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지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우리 안에는 은총의 흐름을 막는 자만심, 두려움,
자기중심 같은 폐쇄회로들이 흐르기 때문이다.

신실한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도를 받는 사람은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알게 된다.
지도자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안에
새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적 지도 기법 -문종원베드로 신부 -

오늘의 말씀 사탕: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에페 2,8)."